

# 옛스승들께 ‘오늘’의 길을 묻는다

옛 스승에게 길을 묻는다. 고승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이 가을에 잇달아 열린다. 9월 22일 태고학회의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7일 보조사상연구원, 29일 봉은사와 사명당 기념사건회, 30일 월정사와 탄허문화재단,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0월 16일 성철 선사상 연구원은 태고 보우, 보조 지눌, 사명대사, 탄허 스님, 월초 스님, 성철 스님을 기려 현대인에게 고승의 지혜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지눌·월초·탄허 스님 조명 학술회의 잇달아 열려

### ■보조지눌의 사상은 조선 중기 사상계를 움직여

“지눌의 사상은 조선 중기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조사상연구원 제52차 월례발표회에서 전북대 이창구 교수는 “서산은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을 이어 받아 당시 선학자들과 교학자들의 경향을 지적, 조선 중기 시대적 상황을 해결하는 길을 마련해주었다”며 “돈오만을 강조해 수행을 게을리했던 선학자들에게 돈오 이후 깨침을 이루는 점수의 필요성을, 선가의 깨침을 믿지 않고 방편에만 집착한 교학자들에게는 돈오의 사상을 통해 퇴보심을 없애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 선교회통, 간화경절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선 사상”이라고 부연했다.

### ■월초 스님 등 고승에 대한 연구 필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월례발표

회에서 한동민(중앙대 강사) 씨는 “근대 불교계 홍월초와 봉선사 홍법강원”을 통해 “동국대 전신 명진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월초 스님은 일제시대 한국불교의 낙후성을 인정하고 포교 등 일본의 선진화된 부분은 배우자는 합

### 보조 지눌 돈오점수사상 조선중기 큰 영향

### 월초 스님 홍법강원 세워 교학발전 이바지

### 탄허 스님 평생 역경·교육 통해 인재 양성

리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선시대 마지막 도총섭(조선시대 최고의 승직)으로서 일본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승의 권위를 지녔고, 전 재산을 시주해 ‘홍법강원’을 만들어 후대 양성과 교학 발전에 이바지했

다”며 “유허 이학수와 운암 김성숙 등 독립운동의 족적을 남긴 이들의 실질적인 스승이었던 월초스님의 사상적 기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월초스님을 조명, 고승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탄허 스님의 회암관은 이타행

“중생의 성불은 여래 출현으로 이어지므로, 적극적인 보살의 이타행이 중요하다.”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탄허 스님 열반 20주기 학술회의에서 동국대 해주 스님은 탄허 스님이

강설한 <현토역해 신화염경합론>을 통해 “보광명지에 의한 사무람십의 전개인 십바라밀은 묘야도 묘음이 없이 묘는 깨달음 후의 묘음인 화엄수행으로, 탄허 스님은 화엄 수행을 참선하는 법으로 간주하여 선교를 회통시켰다”고 탄허스님을 재조명했다. 윤창화(민족사 대표) 씨는 “탄허 스님이 평생을 통해 전개했던 불사는 불전역경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었다”고 스님의 업적을 요약했다. 윤 씨는 “전통강원의 텍스트로서 선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중요한 경전을 교학적 입장보다는 선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현토역해 후학의 학문 연구에 지침이 되었다”며 “그 이전에는 스승 함양의 유혹과 인재양성, 경전의 원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불제자로서의 사명감과 강한 의지력이 그 뒷받침이었다”고 해석했다.

오유진 기자 e.exist@buddhapia.com



◇보조 지눌



◇월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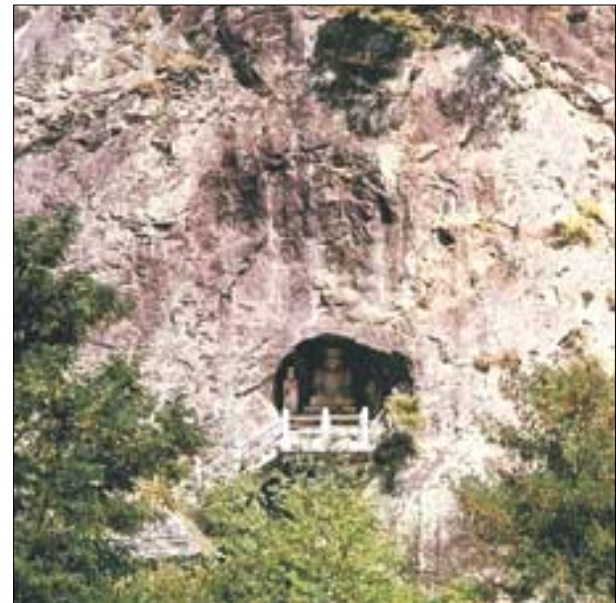
◇탄허 스님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 불상(9)

### 우리나라 최초 석굴사원



◇군위삼존불. 제2의 석굴암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석굴사원'이다.

대구 팔공산에 오르내리다 보면, 귀에 솔깃한 표지판이 눈에 띈다. “제2의 석굴암”. 국보 제109호 지정된 군위삼존불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누가 이 말을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아마 경주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이 워낙 유명하니 그 유명세에 기대어 군위삼존불을 드높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 불상을 석굴암과 비교하면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군위 쪽으로 내려온 산길은 거대한 암벽을 드러내 보이면서 멈춰 섰고, 그 앞에는 계곡의 물이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곳만큼 석굴사원을 조성하기 좋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곳도 드물다. 둔황 막고굴, 유평굴, 병령사석굴, 맥적산석굴, 용문석굴 등 중국의 여러 석굴사원들로 이 처럼 거대한 암반과 충분한 물을 갖춘 곳에 조성되었다. 역시 신라인들은 이곳을 놓치지 않았다. 웅장한 절벽에 동그렇게 굴을 뚫어 아미타삼존불을 모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석굴사원에 익숙한 감각으로 보면 생경하게 느껴진다. 바위의 크기에 비하여 석굴의 크기가 작고, 수많은 굴들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은 것이 아니고 단 하나만 뚫은 것이다. 아무래도 이곳은 실크로드의 석굴사원처럼 국제적인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 아니

## 팔공산 암벽 뚫어 아미타삼존불 조성

### 인도·중국의 영향, “제2석굴암” 호칭 잘못

군위삼존불은 7세기말에 조성되고 석굴암은 751년에 건립되었으니, 군위삼존불이 석굴암보다 약 60년 앞선 것이다. 그러나 굳이 앞의 방식대로 군위삼존불을 표현하자면, “제2의 석굴암”이 아니고 오히려 “제1의 석굴암”이다. 더욱이 석굴암은 자연 암반을 뚫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돌을 쌓아 만든 석굴이다. 석굴사원이 인도에서 살인적인 터위를 피해 산 중턱의 석굴에서 예배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원래의 취지를 염두에 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석굴사원은 군위삼존불이다. 따라서 군위삼존불을 정확히 평가하자면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석굴사원이자 본격적인 석굴사원”인 것이다.

팔공산 봉우리중의 하나인 가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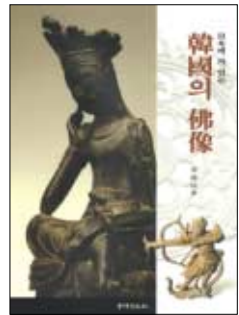
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실크로드의 석굴사원들은 상인들이 머물면서 사업의 번창과 안전을 기원했던 곳이다. 아무튼 인도에서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진 석굴사원의 열풍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드디어 팔공산 자락에서 아시아 석굴사원의 역사가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군위삼존불은 나름대로 엄연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석굴암”이라는 잘못된 평가로 일반인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군위삼존불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역사에 대한 왜곡이다. 군위삼존불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굴사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 미공개 한국불상 156점 소개

### 이호관 前 중앙박물관 미술부장 日 관서지방 조사

### “국보·보물지정 대상 수 건”



인의 눈으로 봐야 한다”

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이호관(68) 씨가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일본 관서지방에 있는 한국의 불상을 조사하게 된 결정적인 한마디다. 1980년대 당시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관장이었던 고(故) 구라다 문사구 씨는 “일본 관서지방에 있는 한국의 불상이 400여 구가 넘을 것”이라며 이 씨에게 조사를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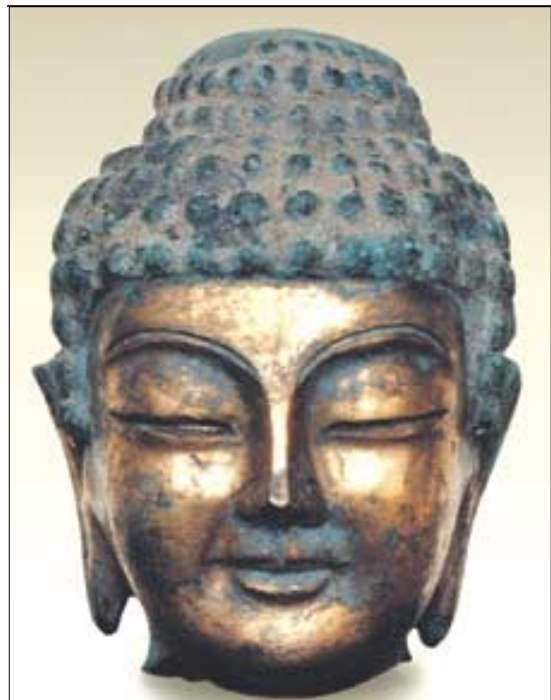
“슈퍼에서 파는 김치는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안다. 불상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불상은 한국

198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확히 3개월간 조사한 한국 불상이 모두 160점. 이 때의 조사 결과가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의 불상>(학연문화사)이란 책으로 엮여, 일반에 공개됐다. 이 가운데 156점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불상이다.

삼국시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외교 경로, 강탈 등에 의해 현해탄을 건너간 한국의 불상이 많다고 알려져 왔지만, 이 책만큼 많은 양의 알려지지 않은 불상이 조사된 것은 처음이다.

이 씨는 “160점 가운데는 국내에 남아있었다면 국보·보물로 지정될 불상도 수 건에 이를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오유진 기자



◇작업이 힘들때마다 이호관 씨의 잡념을 떨쳐줬다는 ‘금동여래상 불두’. 현재 일본 나라시에 보관돼 있다.

## 육법등 (六法燈)



의정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천도를 위한 49등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응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

## 장심사 중창 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수화스님의 분청사기 달마도 복 향아리

선원에서 다년간 참선과 선물을 정진해오시던 수화스님께서 경기 광주 장심사 불사를 위하여 “분청사기 달마도 복 향아리”를 한정 제작하여 장심사 불사가 회향 될때까지 많은 불자들의 동참과 포교차원의 가격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를 가진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도예가 토광 장동국 선생이 빚고 수화 스님이 혼을 담아 직접 달마도를 그려 넣어 만든 “분청사기 달마도 복 향아리”는 소장가치로서도 최고의 작품입니다. 특히 복향아리 달마도는 전사지를 이용하지 않고 수화스님이 직접 그림으로써 각 달마도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어 세계유일의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수화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분청사기 달마도 복 향아리”를 소장하시고 장심사 건립불사 동참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뜻있는 불자들이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불사추진위원회 합장

- ◆ 최고의 작품인 만큼 주문 후 제작 시일이 걸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100여점 한정판매)
- ◆ 주문 제작시 생년월일에 따라 행운을 상징하는 표시를 해드리고 원하시는 이름도 넣어 드립니다.
-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장심사에 직접 방문하시어도 됩니다.

연락처 031-763-8785, 011-685-8760

권 천불지장기도도량 장심사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장심리 30-7